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알코올 조절실패에 미치는 영향: 대처 음주동기를 통한 고통감내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홍 형 기

김 현 진†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본 연구는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알코올 조절실패 간의 관계에서 대처 음주동기를 통한 고통감내력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및 전북 소재 제조업체 1사의 제조업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총 233명(남 212명, 여 2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2.0과 SPSS Macro PROCESS를 활용하여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직무 스트레스와 알코올 조절실패의 관계에서 대처 음주동기가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처 음주동기와 알코올 조절실패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 스트레스가 대처 음주동기를 매개하여 알코올 조절실패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고통감내력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 집단의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알코올 조절 관리에 주는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 직무 스트레스, 알코올 조절실패, 대처 음주동기, 고통감내력, 조절된 매개효과

* 이 논문은 홍형기(2020)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김현진,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E-mail: hjinkim71@gmail.com

서론

술은 오랜 시간 인류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그 역사는 기원전 7000년 신석기 시대부터 존재했을 만큼 오래되었다(Gately, 2009). 적정량의 술을 섭취했을 때 긍정적 기능으로는 행복감을 높여주는 등의 기분 전환을 하게 해주는데 이는 술이 뇌 활동을 억제시켜 불안 감소 및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해주기 때문이다(Michell, O'Nei, Janabi, Marks, Jagust, & Fields, 2012). 술의 이러한 긍정적인 작용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음주는 문제음주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문제음주(problematic alcohol use)는 부적응적인 음주행동으로써 고통이나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기능손상과 같은 부정적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Ham & Hope, 2003). 문제 음주자들의 경우 여러 가지 부정적 생활 사건으로 유발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음주라는 수단을 통해 그러한 정서 경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Ham & Hope, 2003).

2017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문제음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음주율은 '1회 평균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을 일컫는다(Statistics Korea, 2018). 고위험 음주자의 경우 정도가 심해지면 알코올 사용 장애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는데,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 조사에 보고된 한국인의 알코올 사용 장애(alcohol use disorder; AUD)의 평생 유병률은 12.2%로 이 중 알코올 의존은 4.5%, 알코올 남용은 7.7%에 이르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한편 직장인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음주는

그들의 직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행동에 대한 긴장감소이론(tension reduction theory)에 의하면 술은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과 같이 긴장유발 상황에 노출되면 더 많은 음주를 하게 된다(Conger, 1956). 또한 스트레스 대처모형(Wills, & Shiffman, 1985)에 따르면 개인은 음주를 통해 긍정적 정서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기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반응 중 하나로 음주를 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음주량이 많고 음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의 문제음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Kim & Lim, 2010; Shin, 2010; Shim, Bang, & Ahn, 2019).

한편 2018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 제조업 종사자는 전체 직업군의 26.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Bank of Korea, 2019). 이들 제조업 종사자 중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음주 또는 정신 건강과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는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Jeong과 Kim(2014)에 따르면 조선업 사무직 종사자는 생산직 근로자보다 전체 직무 스트레스 수준은 낮은 편이나 직무요구도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요구도는 직무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 정도로 시간적 압박, 과도한 업무량과 책임감 등이 이에 속한다. 사무직 종사자는 업무특성상 직무와 성과보상체계가 직접 연결되어 있고, 과도한 업무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장시간의 집중과 빈번한 연장근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이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상의 어려움이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음주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Kim(2020)의 연구에 따르면 사업장 사무직 남성 근로자들 가운데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관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음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또 다른 연구에서도 직무 스트레스와 음주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Kim, 2011).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의 알코올 조절실패는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 자신과 그들 가족의 심리적 웰빙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려 이로 인해 국가의 제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의 알코올 조절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음주(알코올 조절실패)와 관련성을 가지는지와 이 관계에서 어떤 개인 내적 변인이 조절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높은 직무 스트레스로 음주동기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알코올 조절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개인 내적 변인이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인으로 개인의 고통감내력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통감내력은 여러 연구에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이 정서장애나 부적응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 Jung, 2016). 이는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높아진 음주동기가 개인의 고통감내력에 의해 알코올

조절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가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가 음주를 통한 대처동기를 통해 알코올 조절실패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개인의 고통감내력의 수준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스트레스가 대처 음주동기를 통해 알코올 조절실패로 가는 모형에 대한 검증 사례는 있었으나, 이를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 집단의 직무 스트레스에 적용한 연구는 없었으며, 고통감내력과 알코올 조절실패의 관계를 살핀 연구는 있었으나(Jeong, 2018),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 음주동기 및 알코올 조절실패의 모형 속에서 고통감내력의 영향을 동시에 살핀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알코올 조절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무 스트레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사회 및 직업 조직에서도 직무 스트레스(job stres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Chae, 2019; French, Rosers, & Cobb, 1974). Parker와 Decortis(1983)에 따르면 직무 스트레스는 직업 환경의 상황이나 사건들의 결과로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역기능적 의식 또는 감정을 의미한다. Yang, Lee와 Kum(2011)과 Han(2016)은 직무 스트레스는 크게 직무 자체의 고유한 특성 요인, 개인과 업무 여건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조직이나 환경적 특성 요인,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구성원 개인의 육체적, 심리적 특성 요인에 의

해 유발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그 자체 또는 직무를 둘러싼 주위 환경적 특성이 구성된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맞지 않음에서 발생하는 개인 내·외적 갈등 상태라고 볼 수 있다.

Ko와 Hwang(2010)은 현대의 직장인들은 과도한 업무량 및 성과중심주의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에 처해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직장인들은 개인 및 조직 간의 과도한 경쟁과 기업의 경영 방침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고 점차 누적될 경우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Park & Woo, 2018), 결과적으로 결근 및 이직을 증가시키게 된다(Lee, 2008). Choi와 Jeong(2008)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업무량과 시간 압박(장시간 노동, 연장근무, 교대근무 등), 업무에 대한 낮은 재량권, 직무 책임감 등은 직무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였다. 특히 사무직 근로자들은 장시간의 좌식근무 형태 속에서 수많은 서류 작업을 주로 해야 하며 거래처 및 타부서와 지속적인 미팅과 업무조율 등으로 정신적인 근로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Seo & Joo, 2017). 그 중에서도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빠른 납기 대응 및 개발 일정 준수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교대 근무자의 관리와 업무조율을 함과 동시에 수직적 조직 구조 속에서 원활한 소통의 부족으로 직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직무 집단이라 할 수 있다(Kim, 2020). 사무직 종사자들의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과도한 음주

와 흡연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불안, 우울, 분노 및 공황장애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와 심혈관계 질환 등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 Koo, 2015; Seo & Joo, 2017). 따라서 이들의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알코올 조절실패

지난 20년 동안의 물질 관련 중독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물질 관련 중독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코올 사용 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7; Park et al., 2017; Sayette & Griffin, 2011). 일반적으로 알코올 사용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조절실패의 문제가 사회적, 직업적, 학업적 기능의 손상 및 부적응으로 연결될 때 알코올 중독(alcohol addiction)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Won & Song, 2017).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addicts)라는 용어는 임상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이 용어 자체가 치료를 회피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사람들이 긍정적인 자기상을 유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Myers, Fakier, & Louw, 2009). Schomerus와 연구자들(2011) 또한 중독자라고 자신을 규정할 때 자기낙인(self-stigma) 효과가 발생하여 오히려 음주거절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저하시킴으로써 음주 상황 발생 시 거절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1970년 중반 들어 알코올 중독을 대신하여 알코올 조절실패(impaired control over alcohol)의 의미적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

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통제력 상실(lost control)’의 상태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알코올 사용 문제가 바뀔 수 있고, 가끔 일어나는 문제라는 의미에서 ‘조절실패(impaired control)’의 의미가 크게 대두되어 ‘알코올 의존 증후군(alcohol dependence syndrome)’으로 재개념화되고 있다(Edwards & Gross, 1976).

Won과 Song(2017)은 병리적 심각성 중심의 변인 연구에서 벗어나 알코올 조절실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 문제를 연구하게 될 때 알코올 중독이나 의존 관련 변인보다는 알코올 조절실패를 종속변수로 선별하여 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인 대상 사회적 음주자 표본에서도 조절실패 척도가 알코올 조절실패를 측정하기에 합당한 척도라고 주장한 연구(Marsh, Saunders, & Piek, 2002)와도 일치한다. 특히 조절실패 척도의 하부 영역 중에서도 통제실패(failed control)는 성인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를 위한 조절 음주의 효과성을 예측하거나 향후 문제 음주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eeman, Toll, Taylor, & Volpicelli, 2009). 또한 대학생 집단의 표본에서도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주중 알코올 소비량에 비해 통제실패가 알코올 관련 음주문제를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man, Fenton, & Volpicelli, 2007).

대처 음주동기

음주동기는 음주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여러 요인들의 공통적인 중간 경로이며, 음주행동과의 중간에 다른 매개변인이 없이 바로 연결

되어 영향을 미치는 가장 파급력이 큰 변인으로 간주된다(Cox & Klinger, 1988; Kim & Lee, 2003). 음주행동을 동기이론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음주동기모델들은 공통적으로 사람들은 목적성을 가지고 음주를 한다고 주장한다(Cooper, 1994). 특히 Cox와 Klinger(1988)는 음주동기를 방향성과 그 원천에 따라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음주동기의 4가지 유형은 내적 원천에서 정적강화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음주를 통해 긍정적 정서를 고양시키는 ‘고양동기(enhancement motives)’, 내적 원천에서 부정적 강화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음주를 통해 부정적 정서 상태를 회피하게 되는 ‘대처동기(coping motives)’, 외적 원천에서 정적강화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음주를 통해 모임을 즐기고자 하는 ‘사교동기(social motives)’, 외적 원천에서 부정적 강화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음주를 통해 주변인들로부터 소외되지 않고자 하는 ‘동조동기(conformity motives)’를 포함한다. Cooper(1994)는 Cox와 Klinger(1988)의 분류에 따라서 4요인 음주동기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Shin과 Han(1999)은 우리나라에도 이 모형이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들 음주동기 중 대처 음주동기(coping drinking motivation)는 여러 연구들에서 술을 마시는 수준 혹은 알코올 관련 문제의 심각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oper, Frone, Russell, & Mudar, 1995; Shin, 1999).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을 때,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여 부정적 고통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고 향후 비슷한 부정적 경험 상황에서 회피행동으로 술을 마시는 것을 다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성공적인 회피학습 경험으로 인해 알코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며 이를

통해 대처 음주동기(coping motives)가 강화될 수 있다(Howell, Leyro, Hogan, Buckner, & Zvolensky, 2010). 또한 대처 음주동기로 인한 음주는 부정적 정서가 사라질 때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의 통제 없이 혼자 마시기 때문에 폭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Shin, 1999). Messman-Moore와 Ward(2014)의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조절 곤란이 음주와 관련된 문제 및 음주 소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조절 곤란은 회피, 해소 수단으로 음주를 선택하는 동기 즉 대처 음주동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arbor, Khavari와 Douglass(1980) 또한 알코올 중독자들의 93%가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동기로서 술을 마시는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대처 음주동기는 음주 관련 문제와 통제력이 상실된 채 폭발적인 음주를 하는 행태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통감내력

고통감내력(distress tolerance)은 내적으로 불쾌하고 불편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견디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Brown, Lejeuz, Kahler, Strong, & Zvolensky, 2005; Seo & Kwon, 2016). 고통감내력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고통'과 '감내력' 중 고통(distress)은 즐겁지 않고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정서 경험 상태로 부정적인 정서나 신체적 고통 등이며(Leyro, Zvolensky, & Bernstein, 2010), 이와 함께 생기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Selye, 1950). 다음으로 감내력(tolerance)은 무언가로부터 발생한 고통 또는 경험을 견뎌내는 능력을 말한다(Zvolensky, Leyro, Bernstein, & Vujanovic, 2011).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일어날 때 회피하지 않고 그 불편한 경험 안에서 머물며 이겨내는 과정을 말한다(Leyro et al., 2010; Seo & Kwon, 2016).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통감내력은 반사회성 성격장애, 자해 및 자살행동, 경계선 성격장애, 불안장애와 섭식장애 등의 심리장애 및 문제행동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가정 내에서의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의 심리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변함없이 계속 지탱하도록 돕는 주요한 능력으로 보인다(Anestis & Joiner, 2012; Jung & Kwon, 2013; Kim & Yoo, 2020; Park, 2010). 이 뿐만 아니라 고통감내력은 문제음주에서도 조절변인으로서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음주를 유발하는 개인 내·외적 요인들과 문제음주와의 관계를 고통감내력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Gorka, Ali, & Daughters, 2012)에서 그들의 우울 수준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고통감내력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고통감내력의 조절효과는 집단이나 측정방식 등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Seo & Kwon, 2016). 이렇듯 한 개인이 삶 속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지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인 고통감내력이 높으면 문제음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대처 음주동기, 고통감내력 및 알코올 조절실패의 관계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는 음주를 증가시키고, 흡연 및 카페인 음용 증가, 약물 의존, 물질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된 대인관계 기피, 생산성 저하, 결근 등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Kim & Lim, 2010; Landsbergis et al., 2003). 술이 가진 긴장감소 효과는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는데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Conger, 1956). 따라서 인지적, 정서적 스트레스의 범주인 직무 스트레스는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게 되고 이 부정적 정서를 감소 또는 회피하기 위한 대처동기로 음주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대처동기로서 음주가 가진 특성으로 인해 폭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알코올 조절실패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Shin, 1999). 또한 음주를 통한 부정적 정서의 회피학습의 성공경험은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됨으로써 알코올 조절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Young-Wolff, Kendler, Sintov & Prescott, 2009).

실제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회피행동으로서의 대처 음주동기가 문제음주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Seo & Kwon, 2016; Shin, 1999), 알코올 조절실패를 보이는 사람들은 대처동기로서 음주를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Cho, 2016; Jeong, 2018). Shin(2010)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 성인의 우울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취약성이 문제음주에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음주동기를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Lee(2003) 또한 개인의 성격 및 주변인의 영향이 음주동기를 매개하여 문제음주로 이어지는 매개모형이 알코올 조절실패를 설명하는 여러 대안 모형 중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 모형이 대학생, 일반인 모두에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가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가 알코올 조절실패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대처 음주동기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대처 음주동기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많은 직장인들은 알코올 조절실패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회피행동으로 음주동기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절하는 기능이 개인 내에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많은 심리적 문제나 문제행동이 외현화되지 않도록 자신을 변함없이 지탱하도록 돕는 고통감내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고통감내력은 생활사건이나 스트레스 및 우울 정서가 문제음주로 이어지는 것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orka et al., 2012; O'Leirigh, Ironson, & Smits., 2007; Seo & Kwon, 2016). 고통감내력은 고통을 경험할 때 회피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억제통제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Trafton & Gifford, 2011). 따라서 회피행동으로 음주행동을 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개인들이 고통감내력 수준 또한 낮다면 음주동기가 비교적 손쉽게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Seo & Kwon, 2016). 종합하면 직무 스트레스가 간접적으로 대처 음주동기를 매개로 하여 알코올 조절실패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고통감내력이 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따라서 상기의 사전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가설과 그림 1과 같이 직무 스트레스와 알코올 조절실패 간의 관계에서 대처 음주동기를 통한 고통감내력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최종 연구 문제를 도출하여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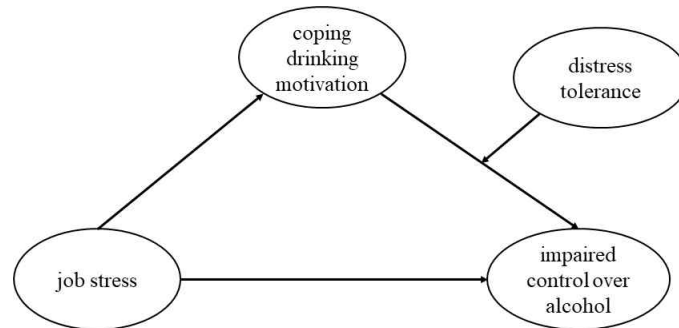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가설 1.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알코올 조절실패 간의 관계를 대처 음주동기가 유의미하게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의 대처 음주동기와 알코올 조절실패의 관계를 고통감내력이 유의미하게 조절할 것이다.

가설 3.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의 고통감내력은 직무 스트레스가 대처 음주동기를 경유하여 알코올 조절실패로 이어지는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및 전북 지역에 위치한 제조업체인 L사에 종사하는 사무직 직원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1일~2020년 3월 2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업체는 기계 및 전자부품 사업을 주요 사업 분야로 하는 제조회사이며 모든 참가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관한 설명문을 숙지한 후 설문에 참가하

도록 안내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사무직 직원의 수는 280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불성실하게 답변했거나 결측치가 있는 응답자를 제외한 총 233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212명(91.0%), 여자 21명(9.0%)로 남자의 비중이 여자에 비해 매우 높았다. 연령대는 20대 15명(6.4%), 30대 85명(36.5%), 40대 112명(48.1%), 50대 21명(9.0%)으로 30대와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결혼상태는 기혼 169명(72.5%), 미혼 60명(25.8%), 기타 4명(1.7%)로 조사되었다. 학력에 있어서는 고졸이하 6명(2.6%), 전문대졸 11명(4.7%), 대졸 157명(67.4%), 대학원졸 이상 59명(25.3%)으로 대졸 이상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자들의 부서는 영업/마케팅 38명(16.3%), 생산/생산기술 40명(17.2%), 연구/개발 72명(30.9%), 품질/생산관리 27명(11.6%), 인사/교육 16명(6.9%), 관리/지원 40명(17.2%)으로 구성되었다. 직책으로는 팀장 39명(16.7%), 팀원(부장) 10명(4.3%), 팀원(차장) 61명(26.2%), 팀원(과장) 65명(27.9%), 팀원(대리) 40명(17.2%), 팀원(사원) 18명(7.7%)이었으며, 이중 팀원(차장)/팀원(과장) 비중이 50%이상을 차지하였다.

측정 도구

직무 스트레스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hang 등(2005)이 개발 및 표준화한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단축형(KOSS-SF)’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무요구(job demand, 예,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직무자율성 결여(insufficient job control,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직무불안정(job insecurity,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관계갈등(interpersonal conflict,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조직체계(occupational system,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보상부적절(lack of reward,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직장문화(organizational climate,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의 7개 하위영역의 총 24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Chang et al., 2005).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전체 평가 방식은 Chang 등(2005)이 제안한 방식으로 하위 영역 환산점수(실점수 - 질문수)/(예상 최고점 - 질문수)×100와 총점(7개 하위영역의 환산 점수 총합/7)을 산출했다. 이때 24개 문항 중 15개의 역문항은 역코딩(채점)하여 포함하였다. 최근 선행연구(Seo & Joo, 2017)에서 내적합치도 계수는 전체 .86이고, 하위영역별로는 직무요구 .73, 직무자율성 결여 .67, 관계갈등 .72, 직무불안정 .62, 조직체계 .71, 보상부적절 .72, 직장문화 .6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전체 .82이고, 하위영역별로는 직무요구 .73, 직무자율성 결여

.57, 관계갈등 .66, 직무불안정 .75, 조직체계 .69, 보상부적절 .66, 직장문화 .64이었다.

알코올 조절실패

알코올 조절실패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Heather, Booth와 Luce(1998)가 개발한 조절실패 척도(impaired control scale)를 Won(2015)이 한국어판으로 수정, 번안하여 타당화한 알코올 자기조절척도(Alcohol Self-Regulation Scale; ASRS, Korean version of the Impaired Control Scale; K-IC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통제시도, 통제실패, 통제예상의 3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통제실패’ 척도만을 활용하였다(예, ‘나는 음주량을 정해 놓고 마시는 것이 어려웠다’). 본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의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알코올 조절실패를 더 자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선행연구(Jeong, 2018)에서 통제실패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대처 음주동기

대처 음주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Shin과 Han(1999)이 Cox와 Klinger(1988)의 음주동기 분류를 기반으로 개발한 음주동기 척도를 활용하였다. 음주동기 척도는 고양동기, 대처동기, 동조동기, 사교동기의 총 4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으로 음주를 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대처동기 척도(총 4문항)만을 활용하였다. 대처동기(coping motive)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나 정서 상태의 부적절성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를 이용하는 정도를 포함한다(Kim & Lee, 2014). 본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

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음주를 이용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선행연구(Kang, 2017)에서 대처 음주동기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높았다.

고통감내력

고통감내력을 측정하기 위해 Park(2010)이 Simons와 Gaher(2005)의 고통감내력 척도(Distress Tolerance Scale)를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절능력을 의미하는 조절(3문항, 예, '고통스러운 감정이 느껴지면 즉시 뭔가를 해야 한다'), 정서적 고통을 감내하는 지각적 능력 및 부정 정서에 주의 함몰 정도를 묻는 감내력과 몰두(5문항, '고통스러운 감정을 참기 힘들다'), 고통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는 평가(7문항, '고통스러운 감정이 두렵다')의 세 요인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Park, 2010).

본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고통감내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근 선행연구(Lee & Jung, 2016)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으며, 요인별로 조절은 .79, 감내력과 몰두는 .92, 평가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전체 .91이고, 하위영역별로 조절은 .81, 감내력과 몰두는 .89, 평가는 .77이었다.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

본 조사에 앞서 설문 문항 및 설문 시간 등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 종사자 20명을 선정하여 오프라인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시간 및 문항 등의 적합성을 최종 검토하여 설문을 확정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의 직무 특성상 컴퓨터와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관계로 사전에 이메일로 온라인 설문에 대해 설명하였고 핸드폰 문자 메시지에 모바일 웹 링크를 첨부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먼저 SPSS 22.0을 통해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의 순서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직무 스트레스와 알코올 조절실패 간의 관계에서 대처 음주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변인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SPSS Macro PROCESS (model 4)를 통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둘째, 고통감내력이 대처 음주동기와 알코올 조절실패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대로 Macro(Model 1)를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직무 스트레스가 대처 음주동기를 통해 알코올 조절실패를 예측하는 경로에서 고통감내력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acro(Model 14)를 적용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샘플은 5,000개로 지정하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기술통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독립변인인 직무 스트레스는 매개변인인 대처 음주동기($r = .186, p < .01$)와 종속변인인 알코올 조절실패($r = .181, p < .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조절변수인 고통감내력과는 부적 상관($r = -.347, p < .01$)을 보였다. 한편 매개변인인 대처 음주동기는 조절변수인 고통감내력과는 부적 상관($r = -.382, p < .01$)을 보였으나 알코올 조절실패와는 정적 상관($r = .575, p < .01$)을 나타내었다. 또한 고통감내력은 알코올 조절실패와 부적 상관($r = -.347, p < .01$)을 보였다.

대처 음주동기의 단순매개효과 검증

직무 스트레스와 알코올 조절실패의 관계를 대처 음주동기가 매개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의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보듯듯이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직무 스트레스는 종속변수인 알코올 조절실패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F = 7.857, p < .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직무 스트레스는 매개변인인 대처 음주동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8.308, p < .01$). 3단계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 음주동기를 동시에 투입하여 알코올 조절실패를 예측한 결과, 대처 음주동기는 알코올 조절실패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F = 58.149, p < .001$), 직무 스트레스는 1단계에서와 달리 알코올 조절실패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는 대처 음주동기의 완전 매개효과를 시사한다.

다음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대처 음주동기를 통해 알코올 조절실패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한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95%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대처 음주동기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233)

Variables	1	2	3	4
job stress	-			
impaired control over alcohol	.181**	-		
copling drinking motivation	.186**	.575**	-	
distress tolerance	-.347**	-.347**	-.382**	-
Mean	47.055	1.246	2.607	3.527
Standard Deviation	10.465	.902	1.067	.663
Skewness	.127	.767	.171	-.169
Kurtosis	1.663	.289	-.502	-.238

* $p < .05$, ** $p < .01$, *** $p < .001$

Table 2. The mediating effect of coping drinking motivation between job stress and impaired control over alcohol (N = 233)

Model	IV	DV	B	SE	β	t	R ²	F
1	job stress	impaired control over alcohol	.016	.006	.181	2.803**	.029	7.857**
2	job stress	coping drinking motivation	.019	.007	.186	2.882**	.031	8.308**
3	job stress coping drinking motivation	impaired control over alcohol	.007 .474	.005 .046	.077 .560	1.408 10.242***	.330	58.149***

* $p < .05$, ** $p < .01$, *** $p < .001$

Table 3. Indirect effect of coping drinking motivation by bootstrapping

Route	Estimate	S.E.	Indirect [bootstrapping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job stress → coping drinking motivation → impaired control over alcohol	.009	.003	.003	.016

고통감내력의 조절효과 검증

대처 음주동기와 알코올 조절실패 간의 관계를 고통감내력이 유의미하게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macro PROCESS의 model 1을 이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을 시행하였다. 이때 독립변인인 대처 음주동기와 조절변인인 고통감내력은 평균중심화(centering)하였다. 조절효과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대처 음주동기와 고통감내력의 상호작용항이 알코올 조절실패를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있음을 시사했다($\beta = -.117$, $p < .05$). 또한 전체 모형의 설명량은 유의미하였으며($R^2 = .363$, $p < .001$),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른 R^2 변화량 또한 .013($p < .05$)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고통감내력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대처 음주동기와 알코올 조절실패의 관계 정도가 고통감내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한편 조절변인의 특정한 값 범위(평균값 ± 1 표준편차)에서 대처 음주동기가 알코올 조절실패에 영향을 주는 조건부 효과(conditional effect)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고통감내력 값의 평균 - 1표준편차(-.663)부터 평균 +1표준편차(.663)의 범위에서 대처 음주동기가 알코올 조절실패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단순기울기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통감내력의 모든 수준에서 대처 음주동기가 높아질수록 알코올 조절실패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통감내력 값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 of distress tolerance between coping drinking motivation and impaired control over alcohol

Variables	DV = impaired control over alcohol						
	B	S.E.	β	t	P	95% CI	
						LLCI	ULCI
constant	1.212	.050		24.227**	.000	1.113	1.310
coping drinking motivation(A)	.429	.048	.507	8.858***	.000	.334	.525
distress tolerance(B)	-.188	.078	-.138	-2.409	.017	-.342	-.034
AxB	-.128	.058	-.117	-2.200*	.029	-.243	-.013
R^2 increase by interaction		R^2		F		P	
		.013		4.820*		.029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Conditional simple regression effects at values of distress tolerance

Distress tolerance	effect	S.E.	t	P	95% CI	
					LLCI	ULCI
$M-1SD(-.663)$.514	.060	8.639***	.000	.397	.631
$M(.000)$.429	.048	8.858***	.000	.334	.525
$M+1SD(.663)$.344	.064	5.350***	.000	.217	.471

* $p < .05$, ** $p < .01$, *** $p < .001$

이 감소하면서 대처 음주동기가 알코올 조절 실패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증가하는데, 이는 고통감내력 저~고집단까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고통감내력 수준이 낮아지면 대처 음주동기가 알코올 조절실패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유의한 상호작용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통감내력을 저집단과 중집단, 고집단 그룹으로 분류하여 변화정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림 2와 같이 고통감내력이 낮아질수록 대처 음주동기 증가에 따른 알코올 조절실패도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가설 2의 고통감내력의 조절효과가 최종 검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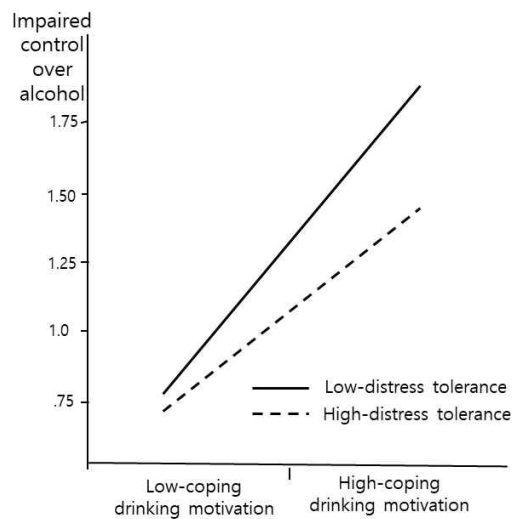


Figure 2. Moderating effect of distress tolerance

고통감내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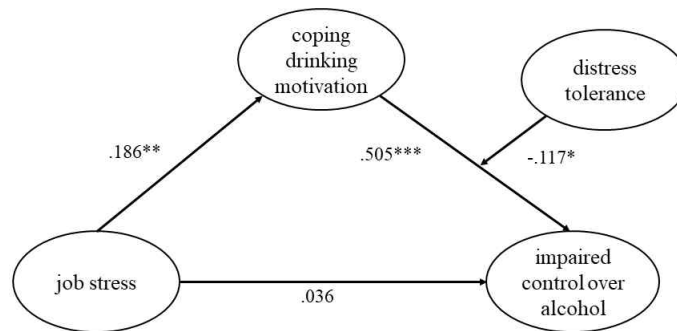
직무 스트레스에서 알코올 조절실패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대처 음주동기의 매개효과를 고통감내력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Macro PROCESS의 model 14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그림 3에 제시되었다. 직무 스트레스는 대처 음주동기를 정적으로 예측하였고($\beta = .186, p < .01$), 대처 음주동기도 알코올 조절실패를 정적으로

Table 6.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distress tolerance by coping drinking motivation

DV : coping drinking motivation							
	<i>B</i>	<i>S.E.</i>	β	<i>t</i>	<i>p</i>	95% <i>CI</i>	
						<i>LLCI</i>	<i>ULCI</i>
constant	-.894	.318		-2.814**	.005	-1.519	-.268
job stress	.019	.007	.186	2.882**	.004	.006	.032
DV: impaired control over alcohol							
	<i>B</i>	<i>S.E.</i>	β	<i>t</i>	<i>p</i>	<i>LLCI</i>	<i>ULCI</i>
constant	1.065	.234		4.548***	.000	.604	1.526
job stress	.003	.005	.036	.641	.522	-.007	.013
coping drinking motivation(A)	.427	.049	.505	8.791***	.000	.331	.523
distress tolerance(B)	-.172	.082	-.126	-2.100*	.037	-.334	-.011
A x B	-.128	.058	-.117	-2.185*	.030	-.243	-.013
<i>R</i> ² increase by interaction	<i>R</i> ²		<i>F</i>		<i>p</i>		
	.013		4.775*		.030		

* $p < .05$, ** $p < .01$, ***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Figure 3.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distress tolerance

예측하였다($\beta = .505, p < .001$). 이때 직무 스트레스는 알코올 조절실패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처 음주동기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 음주동기와 고통감내력의 상호작용항은 알코올 조절실패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beta = -.117, p < .05$). 또한 전체 모형의 설명량은 유의미하였으며($R^2 = .364, p < .001$),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른 R^2 변화량도 .013($p < .05$)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직무 스트레스가 대처 음주동기를 경유하여 알코올 조절실패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고통감내력은 이러한 대처 음주동기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대처 음주동기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알코올 조절실패를 증가시키는데, 이 경로에서 대처 음주동기의 매개효과는 조절변인인 고통감내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절변인인 고통감내력의 특정 값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부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표 7에서 보고하듯이 고통감내력의 조건부 간접효과(직무 스트레스 → 대처 음주동기 → 알코올 조절실패)는 고통감내력 값의 평균 -1표준편차(-.663)부터 평균 +1표준편차(.663)에 걸쳐서 모두 유의미하였다. 즉,

고통감내력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직무 스트레스가 대처 음주동기를 매개로 알코올 조절실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통감내력이 낮아질수록 직무 스트레스로부터 매개된 대처 음주동기에 따른 알코올 조절실패는 더욱 높아지고, 반대로 고통감내력이 높아질수록 직무 스트레스로부터 매개된 대처 음주동기에 따른 알코올 조절실패는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3이 최종 검증되었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알코올 조절실패의 관계를 분석하고, 대처 음주동기를 통한 고통감내력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으며 구체적인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알코올 조절실패 간의 관계에서 대처 음주동기는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감소 또는 회피하기 위한 대처 음주동기가 높아지며, 이는 결국 알코올 조절실패로

Table 7. Conditional indirect effects at values of distress tolerance

Distress tolerance	Effect	boot S.E.	95% CI	
			LLCI	ULCI
M-1SD(-.663)	.010	.004	.003	.018
M(.000)	.008	.003	.002	.014
M+1SD(.663)	.007	.003	.002	.012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대처 음주동기가 문제음주의 강력한 예측, 선행 변인이라는 점이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Cho, 2016; Kang, 2017; Kassel, Jackson, & Unrod, 2000), 다른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직무 스트레스도 대처 음주동기를 통해 문제음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Shin, 2010; Young-Wolff et al., 2009). 인지 및 정서적 스트레스의 범주에 속하는 직무 스트레스는 당사자에게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이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한 대처동기로 음주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대처 음주동기의 특성상 한번 마시면 부정적 정서가 사라질 때까지 마시게 되고, 혼자서 마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폭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알코올 조절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Shin, 1999). 또한 음주를 통한 부정적 정서의 성공적인 회피학습 경험은 이후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음주를 하게 됨으로써 알코올 조절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Young-Wolff et al., 2009).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가 알코올 조절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업 환경 속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대처 음주동기가 아닌 적응적이고 문제해결중심적인 대처전략을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둘째,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의 대처 음주동기와 알코올 조절실패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대처 음주동기와 알코올 조절실패의 관계 정도가 고통감내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고통감내력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대처 음주동기가 알코올 조절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는 Seo와 Kwon(2016)이 고통감내력이 문제음주에

있어 조절변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성인 여성의 우울(Gorka et al., 2012)이나 에이즈 환자의 주요 생활사건(O'Cleirigh et al., 2007)이 그들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고통감내력이 조절한다는 것을 밝혔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알코올 조절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처 음주동기를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 고통을 직면하며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고통감내력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럴 때 대처 음주동기와 고통감내력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알코올 조절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알코올 조절실패의 관계에서 대처 음주동기를 통한 고통감내력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대처 음주동기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알코올 조절실패와도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고통감내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대처 음주동기의 영향력을 줄임으로써 알코올 조절실패로 이어질 개연성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고통감내력은 고통을 경험할 때 회피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대처 음주동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Trafton & Gifford, 2011).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조절실패와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주효과와 조절효과 모두 유의미했기 때문에 고통감내력의 증진 그 자체로 알코올 조절실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대처 음주동기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알코올 조절실패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동안 스트레스와 문제음주 관련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직장인 대상의 연구도 주로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 소방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Kim & Lim, 2010; Shim, Bang, & Ahn, 2019). 하지만 본 연구는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알코올 조절실패의 관계와 관련 변인의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도 직무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부정적 정서의 회피와 완화에 초점을 둔 음주를 통해 그 고통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정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음주는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응적 대처방식으로 쉽게 고착화될 수 있다. 결국 직무 스트레스라는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기 위해 음주로 대처하게 되면 부정적인 정서가 해소될 때까지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된다. 이는 알코올 조절실패에 이르게 될 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제조업 사무직의 직업 현장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빠른 제품 납기 대응과 개발 일정 준수를 위해 시간적 압박이 크고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체적 활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시간의 높은 집중도를 유지해야 하며 빈번한 연장근무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직무와 성과보상체계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고, 수직적 조직 구조 속에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Kim, 2020). 따라서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들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과 삶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업무시간의 탄력적 운영과 신체적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물리적 업무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직장 내에서 지지적이고 유연한 의사소통 구조를 형성함과 더불어 직원 개인의 대인관계능력을 증진하여 업무 및 의견의 조율이 원활하여질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음주리는 부적응적인 대처 방식에서 탈피하고 문제해결중심의 적응적 대처방식을 개발하도록 전문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Lee & Jung, 2016). 개인 또는 집단 대상의 상담이나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 및 타인 비난에 집중되어 있는 그들의 주의를 자신의 강점이나 자원 및 성공경험으로 돌리게 함으로써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도적인 문제해결의 경험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만의 해결중심적 대처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고통감내력이 알코올 조절실패에 주효과 외에도 대처 음주동기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알코올 조절실패의 감소와 관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통감내력이 알코올 조절실패의 감소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까지 임상장면에서는 고통감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왔다(Seo, 2016). 예를 들어 고통감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치료 모듈에는 자기수용과 자기진정, 주의전환 기법을 포함한 이완기법을 통해 기존의 촉발된 고통을 완화시키게 된다(McKay, Wood, & Brantley, 2007). 또한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도 고통감내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Williams(2012)는 고통감내력이 낮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는 상황에서 경험회피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마음챙김(Lotan, Tanay, & Bernstein, 2013) 등을 활용해 부정적인 경험의 회피경향성을 감소시키고 오히려 이를 수용하도록 도움으로써 고통감내력을 높일 수 있다(Seo, 2016). 따라서 직장 내·외에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고통감내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체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 중 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제조업 사무직 종사자들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동일한 제조업 사무직이라고 하더라도 하위 부서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이나 그 영향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폭 넓은 지역과 다양한 제조업 사업체를 선정하여 본 연구 결과를 재확인 해볼 필요가 있으며, 사무직의 다양한 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방법을 계획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해당 제조업체의 특성상 남성 위주의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그 결과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주요 변인의 값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두 집단 간에 연구 모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두 집단을 구분하여 직무 스트레스와 알코올 조절실패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활용하고 있는데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설문지 경우 연구 참여자가 자기 검열에 따라 의도적

으로 다른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알코올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일부 문항에서 의도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후속 연구에서는 외부 의의를 통한 비밀이 보장된 대면설문 방식 등의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결과 분석과정에서 연구참여 280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7명을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47명의 전반적인 특성이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추후 연구에서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설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직무 스트레스로부터 대처 음주동기를 중간 경로로 하여 최종 알코올 조절실패에 이르는 경로에서 대처 음주동기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지만,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 음주동기 간의 관계가 그리 높지 않았음에 대해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동기 중 가장 설명력이 큰 대처 음주동기만을 측정하였지만 개인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양한 이유에서 음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전체 음주동기를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더불어 직무 스트레스의 경우 원척도의 개발자의 제안에 따라 하위 영역 점수와 이를 통한 총점을 산출하였으나 점수 계산방식이 임의적인 측면이 있으며 하위영역별 신뢰도가 높지 않은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직무 스트레스를 보다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본 연구모형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가 알코올 조절실패로 이어지는 과정을 횡

단적 연구설계에 기반을 두고 단일 시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들 주요 변인들의 인과관계 및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후 종단적 연구설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Anestis, M. D., & Joiner, T. E. (2012). Behaviorally-indexed distress tolerance and suicidality.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6*(6), 703-707.
<https://doi.org/10.1016/j.jpsychires.2012.02.015>
- Bank of Korea. (2019). Employment Insurance Subscription Statu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s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Brown, R. A., Lejuez, C. W., Kahler, C. W., Strong, D. R., & Zvolensky, M. J. (2005). Distress tolerance and early smoking laps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9*(6), 713-733.
<https://doi.org/10.1016/j.cpr.2005.05.003>
- Chae, J.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of work and job stress between millennials and older generations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Korea University).
- <http://www.riss.kr/link?id=T15362643>
- Chang, S., Koh, S., Kang, D., Kim, S., Kang, M., Lee, C., Chung, J., Cho, J., Son, M., Chae, C., Kim, J., Kim, J., Kim, H., Roh, S., Park, J., Woo, J., Kim, S., Kim, J., Ha, M., Park, J., Rhee, K., Kim, H., Kong, J., Kim, I., Kim, J., Park, J., Hyeon, S., Son, D. (2005). Developing an occupational stress scale for Korean employees.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17*(4), 297-317.
<http://www.riss.kr/link?id=A342847>
- Cho, E. (2016). The effects of emotion dysregulation and drinking motives on alcohol use among office workers. (Ewha Womans University).
- <http://www.riss.kr/link?id=T13975932>
- Choi, H. S., & Jeong, M. G. (2008). The determinants of employees' emotional labor in call centers.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8*, 1-19.
<http://www.riss.kr/link?id=A105029480>
- Conger, J. (1956). Reinforcement Theory and the Dynamics of Alcoholism,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7*, 296-305.
<https://doi.org/10.15288/qjsa.1956.17.296>
- Cooper, M. L. (1994). Motivation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12*(2), 117-128.
<https://doi.org/10.1037/1040-3590.6.2.117>
- Cooper, M. L., Frone, M. R., Russell, M., & Mudar, P. (1995). Drinking to regulat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990-1005.

- <https://doi.org/10.1037/0022-3514.69.5.990>
- Cox, M., & Klinger, E. (1988).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168-180.
<https://doi.org/10.1037/0021-843x.97.2.168>
- Edwards, G., & Gross, M. M. (1976). Alcohol dependence: provisional description of a clinical syndrome. *British Medical Journal, 1*, 1058-1061. <https://doi.org/10.1136/bmj.1.6017.1058>
- Farbor, P. D., Khavari, K. A., & Douglass, F. M. (1980). A factor analytic study of reasons for drinking: Empirical valid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reinforcement dimens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780-781.
<https://doi.org/10.1037/0022-006x.48.6.780>
- French, J. R. P., Rogers, W., & Cobb, S. (1974). Adjustment as a person environment fit. In G. V. Coelho, D. A. Hamburg, & J. F. Adams (Eds.), *Coping and adaptation* (pp. 316-333). NY: Basic Books.
<https://doi.org/10.2307/2062658>
- Gately, I. (2009). *Drink: A Cultural History of Alcohol*. New York: Gotham Books.
<https://doi.org/10.1080/15332560903408854>
- Gorka, S. M., Ali, B., & Daughters, S. B. (2012). The role of distress toler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problematic alcohol use.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3*(3), 621-626.
<https://doi.org/10.1037/a0026386>
- Ham, L. S., & Hope, D. A. (2003). College students and problematic drink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5), 719-759.
[https://doi.org/10.1016/s0272-7358\(03\)00071-0](https://doi.org/10.1016/s0272-7358(03)00071-0)
- Han, K. J. (2016). A Study of the impact of job stress associated with roles in an organization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eoul National University).
<http://www.riss.kr/link?id=T14225988>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ed). NY: The Guilford Press.
<https://doi.org/10.1111/jedm.12050>
- Heather, N., Booth, P., & Luce, A. (1998). Impaired control scale: Cross validation and relationships with treatment outcome. *Addiction, 93*(5), 761-771.
<https://doi.org/10.1046/j.1360-0443.1998.93576112.x>
- Howell, A. N., Leyro, T. M., Hogan, J., Buckner, J. D., & Zvolensky, M. J. (2010). Anxiety sensitivity, distress tolerance, and discomfort intolerance in relation to coping and conformity motives for alcohol use and alcohol use problems among young adult drinkers. *Addictive Behaviors, 35*(12), 1144-1147.
<https://doi.org/10.1016/j.addbeh.2010.07.003>
- Jeong, J.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ress tolerance and impaired control on alcohol in problematic alcohol users. (Ajou University).
<http://www.riss.kr/link?id=T14919024>
- Jeong, H., & Kim, Y. (2014). A Study on Assessment of Stress at Work between White and Blue Collar Workers in Shipyar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30*(5), 80-85.
<http://dx.doi.org/10.14346/JKOSOS.2015.30.5.80>
- Jung, J., & Kwon, S. M. (2013). The relationship

- between distress tolerance and psychological health: Mediation effects of decentering and avoidant coping.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3), 627-647.
<http://www.riss.kr/link?id=A100627641>
- Kang, J.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distress tolerance, and coping motive among college student. (Chonbuk National University).<http://www.riss.kr/link?id=T14576043>
- Kassel, J. D., Jackson, S. I., & Unrod, M. (2000).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negative mood regulation and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1, 332-340.
<https://doi.org/10.15288/jsa.2000.61.332>
- Kim, H., & Yoo, N. (2020). The Effects of Emotional Trauma on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Distress Toleranc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2(4), 1791-1813.
<https://doi.org/10.23844/kjcp.2020.11.32.4.1791>
- Kim, K. H. (2007). A way to overcome addiction, the modern dunge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2(4), 677-693.
<https://doi.org/10.17315/kjhp.2007.12.4.001>
- Kim, Y. (2020). Relationship between psychosocial factors and job stress of white collar male worker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ttp://www.riss.kr/link?id=T15513243>
- Kim, E. S. (2011). Job stress factor analysis-targeting production workers. (Kyunghee University)
<http://www.riss.kr/link?id=T12522916>
- Kim, D., & Lee, J. (2014).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alcohol drinking expectancies of employee between drinking motives and drinking culture at the workplace. *Organization and HR Management Research*, 38(4), 1-26.
<http://www.riss.kr/link?id=A104582964>
- Kim, I. S., & Lee, Y. H. (2003). The Effects of Personality, Social Pressure and Drinking Motivation on Drinking and Drinking Problem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3), 525-541.
- Kim, E.-J., & Lim, J.-Y. (2010). A Correlational Study of Job Stress, Drinking and Smoking of Local Government Staff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6(1), 61-69.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835224>
- Ko, J., & Hwang, J. (2010). The effects on the job satisfaction and the organizational involvement by the job burnout - hypothesis testing on the effects of the modification variabl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0(1), 523-545.
<http://www.riss.kr/link?id=A60288172>
- Landsbergis, P. A., Schnall, P. L., Belkic, K. L., Baker, D., Schwartz, J. E., & Pickering, T. G. (2003). The workplace and cardiovascular disease: Relevance and potential role for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In J. C. Quick, and L. E. Tetrick (Eds.), *Handbook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pp. 265-28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0474-000>
- Lee, J. (2008). Understanding of Job Stress and

- Management Strategy.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 Lee, J.-Y., & Jung, J.-H. (2016). Moderating effect of distress toler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affect intensity and adaptive and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1*(4), 719-740.
<https://doi.org/10.17315/kjhp.2016.21.4.003>
- Lee, J., & Koo, J.-W. (2015). Occupational Diseases Among Office Workers and Prevention Strategies. *Journal of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34*(2), 125-134.
<https://dx.doi.org/10.5143/jesk.2015.34.2.125>
- Lee, S. Y. (2011). Effect of job stress on industrial accidents- centrally on the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workers. (Dongkook University).
<http://www.riss.kr/link?id=T12378983>
- Leeman, R. F., Fenton, M., & Volpicelli, J. R. (2007). Impaired control and undergraduate problem drinking. *Alcohol and Alcoholism, 42*(1), 42-48. <https://doi.org/10.1093/alcac/agl095>
- Leeman, R. F., Toll, B. A., Taylor, L. A., & Volpicelli, J. R. (2009). Alcohol-induced disinhibition expectancies and impaired control as prospective predictors of problem drinking in undergraduate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3*(4), 553-563.
<https://doi.org/10.1037/a0017129>
- Leyro, T. M., Zvolensky, M. J., & Bernstein, A. (2010). Distress tolerance and psychopathological symptoms and disorders: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among adults. *Psychological bulletin, 136*, 576-600.
<https://doi.org/10.1037/a0019712>
- Lotan, G., Tanay, G., & Bernstein, A. (2013). Mindfulness and distress tolerance: Relations in a mindfulness preventive inter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8*(4), 371-385.
<https://doi.org/10.1521/ijct.2013.6.4.371>
- Marsh, A., Saunders, B., & Piek, J. (2002). The Impaired Control Scale: Confirmation of factor structure and psychometric properties for social drinkers and drinkers in alcohol treatment. *Addiction, 97*(10), 1339-1346.
<https://doi.org/10.1046/j.1360-0443.2002.00190.x>
- McKay, M., Wood, J. C., & Brantley, J. (2007). *The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skills workbook*. Oakland: New Harbinger Publications.
- Messman-Moore, T., & Ward, R. M. (2014). Emotion dysregulation and coping drinking motives in college women.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38*(4), 553-559.
<https://doi.org/10.5993/ajhb.38.4.8>
- Michell J, M., O'Neil J, P., Janabi M., Marks S, M., Jagust W, J., & Fields H, L. (2012). Alcohol Consumption Induces Endogenous Opioid Release in the Human Orbito frontal Cortex and Nucleus Accumbens.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4*(116), 1-8.
<https://doi.org/10.1126/scitranslmed.3002902>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2016 Mental Illness Epidemiology Survey.
- Myers, B., Fakier, N., & Louw, J. (2009). Stigma, treatment beliefs, and substance abuse treatment use in historically disadvantaged communities. *Af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3), 218-222.
<https://doi.org/10.4314/ajpsy.v12i3.48497>

- O'Leirigh, C., Ironson, G., & Smits, J. A. (2007). Does distress tolerance moderate the impact of major life events on psychosocial variables and behaviors important in the management of HIV. *Behavior Therapy, 38*(3), 314-323. <https://doi.org/10.1016/j.beth.2006.11.001>
- Park, S. (2010). Fear of emotions and distress tolerance in young adul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ttp://www.riss.kr/link?id=T12080641>
- Park, S., Kang, S., Kim, K. H., Seo, K., Shin, S., Lee, H., & Jeon, Y. (2017). *Theories and Practices of Addiction Counseling* (2nd edition). Seoul: Hakjisa.
- Park, J. Y., & Woo, C. H. (2018). The effect of job stress, meaning of work, and calling on job embeddedness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7), 105-115. <https://doi.org/10.15207/JKCS.2018.9.7.105>
- Parker, D. F., & DeCotiis, T. A. (1983). Organizational determinants of job stres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2*(2), 160-177. [https://doi.org/10.1016/0030-5073\(83\)90145-9](https://doi.org/10.1016/0030-5073(83)90145-9)
- Sayette, M. A., & Griffin, K. M. (2011). Self-regulatory failure and addiction. In K. D. Vohs & R. F. Baumeister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Vol. 2, pp. 505-521). New York: Guilford Press.
- Schomerus, G., Corrigan, P. W., Klauer, T., Kuwert, P., Freyberger, H. J., & Lucht, M. (2011). Self-stigma in alcohol dependence: consequences for drinking-refusal self-efficacy.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14*(1), 12-17. <https://doi.org/10.1016/j.drugalcdep.2010.08.013>
- Selye, H. (1950). *The physiology and pathology of exposure to stress: a treatise based on the concepts of the general-adaptation-syndrome and the diseases of adaptation*. Montreal: Acta, Inc. <https://doi.org/10.2106/00004623-195133030-00034>
- Seo, J. (2016). Proposal and Validation of the Affective Judgment Model on the Process of Withstanding Distress in Long-term Heavy Drinkers. (Seoul University). <http://www.riss.kr/link?id=T14067118>
- Seo, E-K., & Joo, E. (2017).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occupational stress, and anger rumination on hwa-byung symptoms among white-collar male workers.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33*(2), 29-56. <https://doi.org/10.16935/ejss.2017.33.2.002>
- Seo, J., & Kwon, S.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atic alcohol use and distress tolerance: A review of empirical literature.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5*(1), 143-166. <https://doi.org/10.22257/kjp.2016.03.35.1.143>
- Shim, G.-S., Bang, S.-H., & Ahn, H.-J. (2019).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rinking Status and Job Stress of Firefighters. *Fire Sci. Eng., 33*(2), 132-138. <https://doi.org/10.7731/KIFSE.2019.33.2.132>
- Shin, H. W., & Han, S. Y. (1999). A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ing drinking motive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Social Issues, 3*(1), 77-92.

- Shin, W-W. (201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Vulnerability Factors on Alcohol Problems: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Drinking Motives. *Journal of Social Science*, 21(3), 81-105.
<https://doi.org/10.16881/jss.2010.07.21.3.81>
- Simons, J. S., & Gaher, R. M. (2005). The Distress Tolerance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Motivation and Emotion*, 29(2), 83-102.
<https://doi.org/10.1007/s11031-005-7955-3>
- Statistics Korea. (2018). National Health Statistics 2017.
- Trafton, J. A., & Gifford, E. V. (2011). Biological bases of distress tolerance. In M. J. Zvolensky, A. Bernstein, & A. A. Vujanovic (Eds.), *Distress tolerance: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 80 - 102). The Guilford Press.
- Wills, T. A., & Shiffman S. (1985). Coping and substance use: A conceptual framework (1985). *Coping and substance use*, Shiffman S, and Wills T. A. (eds.), pp. 3-24. Academic Press Inc, Orlando, FL.
- Williams, A. D. (2012). Distress tolerance and experiential avoidance in compulsive acquisition behaviour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4(4), 217-224.
<https://doi.org/10.1111/j.1742-9536.2012.00055.x>
- Won, S. (2015). The effects of goal-focused self-regulation program for patients with alcohol use disorder. (Ajou University).
<http://www.riss.kr/link?id=T14010274>
- Won, S., & Song, M. S.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focused self-regulation and impaired control on alcohol: mediation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and impulsivity.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2(4), 969-994.
<https://doi.org/10.17315/kjhp.2017.22.4.008>
- Yang, J. S., Lee, S. Y., & Kum, H. S. (2011). A study on the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disabled employees: Focusing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1(4), 25-48.
<http://www.riss.kr/link?id=A82575993>
- Young-Wolff, K. C., Kendler, K. S., Sintov, N. D. & Prescott, C. A. (2009). Mood-Related Drinking Motives Mediate the Familial Between Major Depression and Alcohol Dependence. *Alcoholism: Clinical & Experimental Research*, 33(8), 1476-1486.
<https://doi.org/10.1111/j.1530-0277.2009.00978.x>
- Zvolensky, M. J., Leyro, T. M., Bernstein, A., & Vujanovic, A. A. (2011). Historical perspectives, theory, and measurement of distress tolerance. In Zvolensky, M. J., Bernstein, A., Vujanovic, A. A., (Eds). *Distress tolerance: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 3-27). New York: Guilford Press.

투고일자 : 2020. 10. 19

수정일자 : 2021. 02. 18

게재확정 : 2021. 05. 12

**The Effect of Job Stress on Impaired Control over Alcohol
in Manufacturing Company Office Workers: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Distress Tolerance
through Coping Drinking Motivation**

Hyung Ki Hong

Hyunjin Kim

Seoul Cyber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distress tolerance through coping drinking motivation in 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impaired control over alcohol of office Worker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office employees of manufacturer L, located in Jeonbuk and Gyeonggi-do. Total 233 data(males=212, females=21)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and SPSS Macro. As a result, first, the coping drinking motivation had a ful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impaired control over alcohol. Second, the distress tolerance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the coping drinking motivation and impaired control over alcohol. Thir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distress tolerance on the 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impaired control over alcohol through coping drinking motiv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on alcohol control management for worker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ere discussed.

Key words : Manufacturing Company Office Workers, Job Stress, Impaired Control over Alcohol, Coping Drinking Motivation, Distress Tolerance, Moderated Mediation Effect